

### 공동체 소식



#### 부활 제2주일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 ■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넘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며, 믿는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 ‘부활시기’ 안내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어: ‘다’ 양식

#### ■ 전례꽃 봉헌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봉헌자: 김말자 세실리아, 김명희 리드비나, 김인자  
글라라, 김진미 안젤라, 김화년 요안나, 박계숙 헬레나,  
박정자 수산나, 유계화 세실리아, 한순례 루시아.  
(이상 9분)  
- 봉헌총액: 250 달러.

#### ■ 첫영성체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대상:  
김로즈 로즈 (김지혜 수산나의 녀),  
박경민 다니엘 (박동희안나의 자),  
김정빈 바오로, 김정훈 로베르토 (장보혜 프란체스카의 자)

####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4/16(주일), 교중미사 후.

####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파 견 |
|-----|-----|-----|-----|
| 129 | 221 | 174 | 136 |

####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향 복사    |
|-----|---------|---------|
| 금 주 | 김정원 안젤라 | 이원준 요한  |
| 차 주 | 정예진 한나  | 정예찬 미카엘 |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 제2독서                |
| 금 주 | 김대연 요셉   | 감영진 라파엘<br>한춘희 라파엘라 |
| 차 주 | 김주연 세실리아 | 박태주 로마노<br>김명희 리드비나 |

#### ■ 애찬 봉사자

|     |               |
|-----|---------------|
| 금 주 |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
| 차 주 | 김명희, 정연숙, 박동희 |

#### ■ 헌금 봉사자

|     |                   |
|-----|-------------------|
| 금 주 | 감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 차 주 |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

#### ■ 우리들의 정성

|                  | 영성체  | 헌금     | 교무금,2차            |
|------------------|------|--------|-------------------|
| 3/29             | -    | 163 달러 | 123 달러            |
|                  | -    | 92 달러  | 80 달러             |
| 3/31             | -    | 153 달러 | - 달러              |
| 4/1              | 50 명 | 274 달러 | 900 달러<br>(총 2세대) |
| Rice Bowl 335 달러 |      |        |                   |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8년 4월 8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께서는 우리가 파스카 주일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알아 뵈고, 주님의 부활을 힘차게 증언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청합시다.

#### ○그림 묵상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 27-28)

믿기를 거부했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합니  
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뺨속까지  
파고드는 절절한 고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증언합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4,32-35  
<한마음 한뜻>

화 답 송 :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 독 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5,1-6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생명의 말씀

## '용서' 는 참 기쁨과 참 평화에로 나아가게 하는 파스카적인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을 뵙니다. 그들 중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레나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에게 매수를 당한 경비병들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 갔다는 소문이 귀에 들려옵니다. 이를 접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분열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대사제와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제자들을 처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참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휘감긴 제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방비책은 오로지 함께 모여 문을 단단히 닫아걸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건네시며,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합니다. 공동 번역은 “제자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전해줍니다. 깊은 공포와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방 안에 넘쳐흐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파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고 이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숨결인 성령을 받아 파견되는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파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기쁨과 평화의 뿌리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파스카적인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참 기쁨과 참 평화에로 말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나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 증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곳은 나에게 어느 곳일까? 나의 가정에서일까, 직장에서일까, 성당의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일까? 바로 그곳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참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를, 구원의 신비를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한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  
선물이지만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것은 인간의 몫**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당신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제게는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 저를 도와주는 공동체 일지도 모릅니다. 제 삶을 개방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파견되는 체험을 하게 된 건 공동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나운서로 6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일하는 것의 의미, 산다는 것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었고 꿈을 이뤘으며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점점 제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나운서실 한 부장님의 권유로 당시 서강대에서 하던 목요신학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갔다가 강좌를 듣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쿵쿵거리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 후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있는 공동체는 ‘국제평신도공동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기도와 성찰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기도로 함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각자의 상황 안에서 당사자가 가장 주님 뜻에 맞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러한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익숙했던지라 거부감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신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대하고 삶을 나누고 세상 속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제겐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나고 함께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많이 하고 인기를 얻고 소위 ‘잘 나가는’ 방송인이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삶을 기쁘게 채우는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선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채워주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웠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저 다운 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내려놓게 하는 곳, 그런 공동체가 있어 무척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진정한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 이상호 비오 | KBS 아나운서

### 교리상식



#### 복자의 이름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가 시성사를 통해 신앙의 모범이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성인 이름만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성인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복자나 가경자(하느님의 종)의 이름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제 855조)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준 덕을 본받는 일입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